

해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인과효과 평가

강종현* · 고범석²

¹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²대구보건대학 호텔조리음료계열

Measuring the Causal Effects of Health Involvement,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on Seafood Consumption

Jong-Heon Kang^{1*}, Beom-Seok Ko²

¹Dept. of Cooking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Hotel Culinary Arts & Wine · Coffee,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ing the effects of health involvement,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behavioral intention on seafood consumption. A total of 23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 for the data also indicated excellent model fit. The direct effect of health involvement on attitud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rect effects of health involvement, attitude and PBC on consum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attitude, PBC and behavioral intention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onsumption. Moreover, health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attitude and PBC. Health involvement also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consumption through attitude, PBC and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 and PBC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consumption through behavioral intention. In conclusion, based on structural analysis, a model was proposed of interrelations among health involvement, attitude, PBC, behavioral intention and seafood consumption. Other variables(sensory variable, habit, norm etc) may be incorporated to form models that consist of new antecedent and consequence pairs.

Key Words : health involvement, attitude, PBC, behavioral intention, seafood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져 해산물 소비가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행동과 해산물 수요에 건강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해산물 마케팅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식행위와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보건 관계자들에게 아주 중요할 수 있다(Trondsen 등 2004). 사람들의 식행동 또는 음식결정은 맛, 냄새, 질감 등의 감각적인 요인과 태도, 건강, 가격, 도덕적 의무감, 개인의 가치, 사회적 영향, 구매가능성, 지각된 위험, 편의성, 자기 동일성 등의 비감각적인 요인의 복소함수(complex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Honkanen 등 2005), 사람들의 식행동 또는 음식결정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음식 선호도, 신념, 조리기술, 지역 공급물량 등의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Myrland 등 2000).

지금까지 음식 소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는 음식 소비행동을 예측하는데 기존의 태도-행동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던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식사 선택에 미치는 맛, 선호도, 건강과 편의성의 영향(Furst 등 1996), 바닷가재 구매결정에 미치는 편의성의 영향(Kinnucan 등 1993), 생선을 소비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와 소비빈도에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Verbeke & Vackier 2005; Mahon 등 2006), 해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미치는 태도, 과거행동과 습관의 영향(Honkanen 등 2005), 해산물을 소비하는 빈도에 미치는 연령, 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영향(Olsen 2003),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을 소비하는 빈도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Letarte 등 1997; Leek 등 2000)에 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태도-행동모형을 적용하여 해산물 또는 다른 건강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행동의도, 소비빈도 등의 소비행동에 소비자들의 건강 또는 건강식품

* Corresponding author : Jong Heon Kang, Department of Cooking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315 Maegok-dong, Suncheon, Jeonnam 540-742, Korea
Tel: 82-61-750-3694 HP: 016-632-0439 Fax: 82-61-750-5444 E-mail: astckjh@hanmail.net

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태도-행동모형에서 행동의도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중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구성개념으로 선택했다. 이 두 개념들 이외에 Olsen(2003)의 연구에서 해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던 건강몰입을 구성개념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떠한 변수가 해산물 소비 행동의도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틀과 접근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소비 등의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하여 구성개념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구성개념들의 직접효과에선 건강몰입이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지, 태도가 행동의도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성개념들의 간접효과에선 건강몰입이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지, 건강몰입이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지, 태도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받은 1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자들이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250명에게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최초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250명이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35명(94%)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에 관한 내용과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하고 있는 개념들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하고 있는 개념들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에서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등의 구성개념 측정문항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건강몰입은 해산물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요인으로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견해나 사항, 또는 건강식(healthy eating)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Olsen 2001; Olsen 2003; Gempesaw 등 2005), 선행연구들(Roininen 등 1999; Olsen 2003)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문항들은 '건강을 위해선 음식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선 건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것들(운동, 보양식 섭취 등)을 하고 있다' 등의 4문항이었다.

태도는 해산물에 대해 호의적인(favor) 정도, 선호하는(liking) 정도, 만족하는(satisfaction) 정도, 또는 맛있는(good)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Olsen(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문항들은 '저녁식사로 해산물을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해산물을 먹을 때의 만족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저녁식사로 먹는 해산물의 맛이 좋다고 생각한다' 등의 4문항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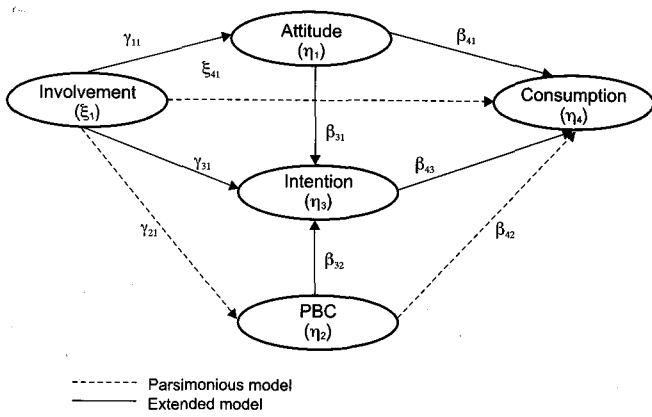
지각된 행동통제는 해산물을 구매하고 조리하여 먹을 시간이나, 식후에 먹고 난 것을 치우는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Furst 등 1996; Olsen 2003), Ajzen(1991)의 기대-가치 모형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참고하고 개발해서 Olsen(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문항들은 '해산물을 조리하여 먹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주 요리해 먹지 못한다', '해산물을 먹고 난 후에 뒷정리나 설거지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주 요리해 먹지 못한다' 등의 2문항이었다.

행동의도는 해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Mahon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은 해산물 소비를 늘일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소비는 해산물 섭취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Olsen(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최근에 얼마나 자주 해산물을 섭취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다. 소비는 해산물을 먹은 횟수가 거의 매일이면 7번, 1주일에 3-4회이면 6번, 1주일에 1-2회이면 5번, 1달에 1-2회이면 4번, 1년에 3-6회이면 3번, 1년에 1-2회이면 2번, 그리고 전혀 먹지 않았다면 1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Fishbein & Ajzen(1975), Ajzen(1991)과 Olsen(2003)의 연구모형들을 참고하여 <Figure 1>과



<Figure 1> Research model

같은 5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개발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1개 외생개념과 4개 내생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와 같이 수리모형으로 설정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건강몰입과 태도의 경로, 건강몰입과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 건강몰입과 행동의도의 경로, 건강몰입과 소비의 경로, 태도와 행동의도의 경로, 태도와 소비의 경로,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경로, 지각된 행동통제와 소비의 경로, 행동의도와 소비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구성개념들의 평균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이 이용되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이 이용되었다.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이용되었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분석, 확인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LISREL 8.72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남성은 114명(48.5%)이었고, 여성은 121명(51.5%)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에 연령이 20대 이하인 응답자가 88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응답자가 45명(19.1%)으로 가장 적었다. 학력 수준에서 고졸 이하인 응답자가 95명(40.4%)이었고, 대졸 이상인 응답자가 140명(59.6%)이었다. 소득 수준에서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14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4명(1.7%)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4	48.5
	Female	121	51.5
Age	29 yrs or less	88	37.4
	30-39 yrs	52	22.1
	40-49 yrs	45	19.1
	50 yrs or more	50	21.3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95	40.4
	College or more	140	59.6
Income (Monthly)	₩1,999,999 or less	143	60.9
	₩2,000,000 - ₩2,999,999	59	25.1
	₩3,000,000 - ₩3,999,999	23	9.8
	₩4,000,000 - ₩4,999,999	6	2.6
	₩5,000,000 or more	4	1.7
Total	235	100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3개 요인들의 요인적재량과 크론바 알파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등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모형에서 개별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몰입과 4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580부터 0.717까지로 나타났다. 태도와 4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744부터 0.871까지로 나타났다. 지

<Table 2> Standardized loadings, Cronbach's alpha of constructs

Constructs and indicators	Standardized loadings	t	Cronbach's alpha
Involvement			0.714
Healthy food is important for me.	0.717	10.342***	
I am very involved in healthy issues.	0.626	8.958***	
It is important for me to have variation in my diet.	0.592	8.425***	
I do what I can to stay healthy	0.580	8.229***	
Attitude			0.877
Seafood for dinner gives me a pleasant feeling.	0.871	16.008***	
I feel very satisfied when I have seafood for dinner.	0.813	14.437***	
Seafood tastes good.	0.779	13.583***	
It is wise to have seafood for dinner.	0.744	12.737***	
PBC			0.657
Lack of time for cleaning up.	0.853	5.467***	
Lack of time to prepare and serve a seafood meal.	0.575	8.229***	

*** p<0.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onstructs

	Mean ±SD	Involvement	Attitude	PBC	Intention	Consumption
Involvement	3.852 ± 0.662	1				
Attitude	3.288 ± 0.789	0.273*** (0.076)	1			
PBC	2.940 ± 0.943	0.023 (0.088)	0.053 (0.080)	1		
Intention	2.072 ± 0.821	0.247*** (0.072)	0.311*** (0.063)	-0.191* (0.076)	1	
Consumption	4.234 ± 1.223	0.199** (2.696)	0.338*** (0.062)	-0.244** (0.077)	0.702*** (21.172)	1

* p<0.05, ** p<0.01, *** p<0.001. () SE.

각된 행동통제와 2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575와 0.85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구성개념들과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p<0.001) 때문에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구성개념들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크론바 알파값은 건강몰입이 0.714, 태도가 0.877,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0.657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는 일반적인 추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개념들이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되었다. 건강몰입은 태도, 행동의도, 소비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273, 0.247, 0.199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태도는 행동의도, 소비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311, 0.338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 소비 등의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0.191, -0.244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행동의도는 소비와의 상관관계에서 0.70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건강몰입과 지각된 행동통제의 상관관계와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상관관계의 계수 신뢰구간(=계수±2×SE)이 1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개념들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Table 4>에 의하면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카이제곱의 값이 94.612이었고, 유의확률이 p<0.01보다 낮게 나타났고, 기초 적합지수(GFI), 비교 적합지수(CFI), 상대 비중심지수(RNI)와 비표준 적합지수(NNFI)의 추정치들은 각각 0.940, 0.960, 0.960, 0.943으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평균제곱 잔차제곱근(RMSEA)은 0.064로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

5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들은 <Table 4>에서 제시되었다. 건강몰입과의 인과관계 경로들을 제한했던 간명모형은 카이제곱 값이

112.578이었고, 유의확률이 p<0.001로 나타났지만, 기초 적합지수가 0.929, 비교 적합지수가 0.950, 상대 비중심지수가 0.950, 비표준 적합지수가 0.935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기준인 0.9 이상이었다. 그리고 근사평균제곱 잔차제곱근이 0.069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기준인 0.08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명모형은 전반적인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건강몰입과의 인과관계 경로들을 제한하지 않았던 확장모형은 카이제곱 값이 94.896이었고, 유의확률이 p<0.001로 나타났지만, 기초 적합지수가 0.939, 비교 적합지수가 0.961, 상대 비중심지수가 0.961, 비표준 적합지수가 0.945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기준인 0.9 이상이었다. 그리고 근사평균제곱 잔차제곱근이 0.063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기준인 0.08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장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간명모형과 확장모형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두 모형의 카이제곱 값 차이가 17.682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 태도와 소비의 경로들을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이었고, 이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 분석

5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한 결과들은 <Table 5>와 <Figure 2>에서 제시되었다. <Table 5>에 의하면 태도에 영향을 미

<Table 4> Fit measur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Fit measures	CFA results	Parsimonious Model	Extended Model
χ^2	94.612	112.578	94.896
Degree of freedom	46	51	47
Probability	0.001	0.000	0.000
$\Delta\chi^2(df)$			17.682(4)**
GFI	0.940	0.929	0.939
RMSEA	0.064	0.069	0.063
CFI	0.960	0.950	0.961
RNI	0.960	0.950	0.961
NNFI	0.943	0.935	0.945

** p<0.01, $\Delta\chi^2 > 13.28$

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344였고, t값은 3.19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해산물 섭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027이었고, t값은 0.33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300이었고, t값은 2.30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해산물을 더 섭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의 경로계수는 0.362였고, t값은 3.8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해산물 섭취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할수록, 해산물을 더 섭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계수는 -0.362였고, t값은 -2.8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해산물을 요리해서 먹기가 용이할수록, 해산물을 더 섭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011이었고, t값은 0.11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1).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의 경로계수는 0.195이었고, t값은 2.69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해산물 섭취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할수록, 해산물 소비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계수는 -0.235였고, t값은 -2.4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해산물을 요리해서 먹기가 용이할수록, 해산물 소비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도의 경로계수는 0.631이었고, t값은 12.29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해산물을 더 섭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해산물 소비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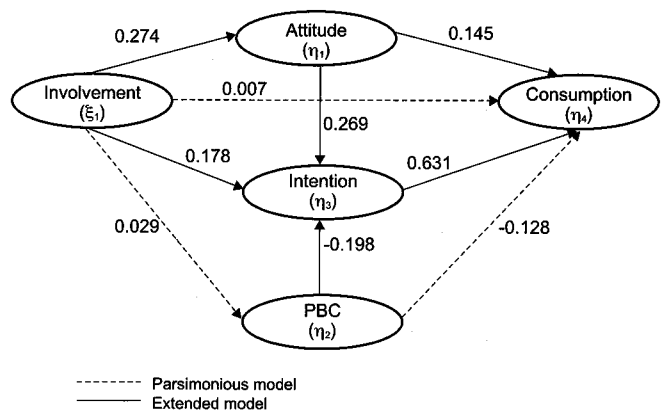
건강몰입과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512)의 합으로 계산되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7.5%였다. 건강몰입과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300)의 합으로 계산되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0.1%였다. 건강몰입과의 경로계수, 태도와의 경로계수,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835)의 합으로 계산되는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6.7%였다. 건강몰입과의 경로계수, 태도와의 경로계수,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경로계수, 행동의도와의

<Table 5> Path coefficien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Coefficient	t	Error	R ²
η_1			0.512	0.075
$\eta_1 \leftarrow \xi_1(\gamma_{11})$	0.344	3.194**		
η_2			0.300	0.001
$\eta_2 \leftarrow \xi_1(\gamma_{21})$	0.027	0.339		
η_3			0.835	0.167
$\eta_3 \leftarrow \xi_1(\gamma_{31})$	0.300	2.309*		
$\eta_3 \leftarrow \eta_1(\beta_{31})$	0.362	3.850***		
$\eta_3 \leftarrow \eta_2(\beta_{32})$	-0.362	-2.804**		
η_4			0.475	0.527
$\eta_4 \leftarrow \xi_1(\gamma_{41})$	0.011	0.116		
$\eta_4 \leftarrow \eta_1(\beta_{41})$	0.195	2.698**		
$\eta_4 \leftarrow \eta_2(\beta_{42})$	-0.235	-2.404*		
$\eta_4 \leftarrow \eta_3(\beta_{43})$	0.631	12.294***		

* p < 0.05, t > 1.960; ** p < 0.01, t > 2.576; *** p < 0.001, t > 3.291.

ξ_1 : Involvement, η_1 : Attitude, η_2 : PBC, η_3 : Intention, η_4 : Consumption.



<Figure 2> Standardized direct effec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0.475)의 합으로 계산되는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52.7%였다.

5개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성개념들 간 간접효과를 분석한 <Table 6>에 의하면, 건강몰입은 행동의도에 직접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간접효과(0.068)를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건강몰입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0.19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0.170)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0.12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행동의도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요인만이 아니라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는 요인도 행동의도와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Covariate	Total	Indirect
$\eta_1 \leftarrow \xi_1(\gamma_{11})$	0.274	0.274	0
$\eta_2 \leftarrow \xi_1(\gamma_{21})$	0.029	0.029	0
$\eta_3 \leftarrow \eta_1(\gamma_{31})$	0.316	0.269	0
$\eta_3 \leftarrow \eta_2(\gamma_{32})$	-0.191	-0.198	0
$\eta_4 \leftarrow \eta_3(\gamma_{43})$	0.703	0.631	0
$\eta_3 \leftarrow \eta_1/\eta_2 \leftarrow \xi_1$	0.246	0.246	0.068(2.057)*
$\eta_4 \leftarrow \eta_1/\eta_2/\eta_3 \leftarrow \xi_1$	0.198	0.198	0.191(3.176)**
$\eta_4 \leftarrow \eta_3 \leftarrow \eta_1$	0.345	0.315	0.170(3.699)***
$\eta_4 \leftarrow \eta_3 \leftarrow \eta_2$	-0.247	-0.253	-0.125(-2.746)**

* $p < 0.01$, $t > 1.960$; ** $p < 0.01$, $t > 2.576$; *** $p < 0.001$. () t value.
 ξ_1 : Involvement, η_1 : Attitude, η_2 : PBC, η_3 : Intention, η_4 : Consumption.

IV. 결 론

본 연구는 건강몰입,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소비 등의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들로부터 설문을 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인요인분석, 크론바 알파값과 상관관계계수에 의해서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건강몰입과의 인과관계 경로들을 제한했던 간명모형과 제한하지 않았던 확장모형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확장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는 확장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몰입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와 소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의도가 소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건강몰입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미치는 건강몰입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미치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간접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몰입,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해산물 소비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 해산물을 더 섭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며, 해산물 소비빈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태도, 행동의도와 소비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요인들, 태도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를 통하여 소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할 수 있는 연구 틀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이론을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 감각변수, 습관, 규범 등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사용된 변수들을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조사대상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행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Fishbein M, Ajzen J. 1975.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In Bernden M, Pligt J (2004) : *Ambivalence towards meat*. *Appetite*, 42: 71-78
- Furst T, Connors M, Bisogni CA, Sobal J, Falk W. 1996.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 247-266
- Gempesaw CM, Bacon JR, Wessels, CR, Manalo A. 1995. Consumer perceptions of aquaculture produc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e Economics*, 77: 1306-1312
- Honkanen P, Olsen SO, Verplanken B. 2005. Intention to consume seafood-the importance of habit. *Appetite*, 45: 161-168
- Juhl HJ, Poulsen CS.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consumer involvement in fish as a product group. *Appetite*, 34: 261-267
- Kinnucan HW, Nelson RG, Hiariey J. 1993. U.S. preferences for fish and seafood: an evoked set analysis. *Marine Resource Economics* 8: 273-291
- Leek S, Maddock S, Foxall G. 200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British Food Journal*, 102: 18-39
- Letarte A, Dube L, Troche V. 199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ffective and cognitive origins of food likes and dislikes. *Appetite*, 28: 115-129
- Mahon D, Cowan C, McCarthy M. 2006. The role of attitudes,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and habit in the consumption of ready meals and takeaways in Great Britai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7: 474-481
- Myrland O, Trondsen T, Johnston RS, Lund E. 2000. Determinants of seafood consumption in Norway: lifestyle, revealed preferences, and barriers to consump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1: 169-188
- Olsen SO. 2001. Consumer involvement in seafood as family meals in Norway: an application of the expectancy-value approach. *Appetite*, 36: 173-186

- Olsen SO. 200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afood consumption: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4: 199-209
- Roininen K, Lahteenmaki L, Tuorila H. 1999. Quantific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 health and hedonic characteristics of foods. *Appetite*, 33: 71-88
- Trondsen T, Braaten T, Lund E, Eggen AE. 2004. Health and sea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women aged 45-69 year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5: 117-128
- Verbeke W, Vackier I. 2005. Individu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44: 67-82

(2007년 8월 20일 접수, 2007년 10월 18일 채택)